

韓 기업 걸림돌 ‘해외 기술규제’ 과불화화합물 등 11건 이의제기

국표원-식약처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조사
6개국 특정무역역안 애로사항 전달
美·日 양자회의서 협력 강화 제안
유아용 섬유제품 안전기준 협의도

정부가 과불화화합물(PFAS) 사용 제한 등 해외 무역기술규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3년 제3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 T) 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해 우리 기업에 걸림돌이 되는 해외기술규제에 대해 상대국에 애로를 제기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우리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 반도체 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과불화화합물 사용 제한 규제를 포함해 6개국을 대상으로 배터리, 휴대폰, 화장품, 의료기기 등 산업 관련 11건의 규제에 대해 특정무역역안(Specific Trade Concerns)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또 과불화화합물 규제 대응과 관련해 미국, 일본과 양자회의를 통해서도 우리 업계 우려를 전달하고, 협력 강화를 제안하는 한편, 유아용 섬유제품 안전기준 등과 관련해 유럽연합(EU) 측과 양자협의를 실시하고 무역기술장벽과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과불화화합물은 탄소와 불소가 결합한 유기화합물질로, 물과 기름, 화학물질, 열 등에 강해 아옷도어 제품, 조리도구 코팅 재료, 자동차 배터리, 전자 부품 등 원료나 코팅제로 사용된다.

하지만 잘 분해되지 않아 인체 유해성이 제기되며 전자제품 등에 사용 금지가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업계에 당장 대체제가 없는 상황에서 규제 도입을 신중히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번 협상 결과를 수출기업 및 관계 부처와 공유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해결되지 않은 애로에 대해서는 산업계와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해 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해외 규제당국과의 대화, 협력을 통한 해결방안 모색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해외기술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은 ‘해외 기술규제대응정보시스템(KnowTB T)’을 통해 정부의 도움을 요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농진청, 양봉농가에 ‘스마트 가온장치’ 보급

월동 꿀벌 폐사 방지

최근 겨울철 꿀벌 감소로 피해를 입고 있는 양봉 농가를 위해 벌통에 적용할 수 있는 ‘스마트 전기 가온 장치’가 개발됐다.

농진청은 벌통 내부의 최적 온도와 습도를 감지하는 장치와 전기 가온 장치를 연계해 벌통 내부 온도를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해 농가에 보급한다고 12일 밝혔다.

농진청은 “스마트 가온전기장치를 적용하면 겨울철 벌통 내 온도가 영상 12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유지되며, 겨울철 고온일 때도 벌통 내 온도 차가 크지 않아 월동 벌무리의 90% 이상이 안정적으로 겨울을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또 월동 꿀벌 폐사율이 10% 이하로 줄어들면 벌무리(봉군) 손실 비용이 약 675억원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농진청은 이번 연구 결과를 신기술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 적용하고 개선점을 보완해 전국 양봉 농가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2021~2022년 겨울철 남부지방



스마트 벌무리(봉군) 설치 현장 사진 /농진청

에서 시작해 전국적으로 많은 꿀벌이 폐사했으며, 지난해는 11월 고온으로 일벌 활동량이 늘어나면서 노화한 일벌이 겨울을 나지 못하고 죽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농진청은 “이상 기상으로 인한 큰 일교차가 꿀벌의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보고 있다”며 “특히 겨울철 고온과 큰 일교차는 쉬면서 겨울을 나야 하는 일벌을 활동하게 만들어 월동 중 일벌의 수명을 감소시키는 문제 원인이 된다”고 분석했다.

한편 최근 일부 농가에서는 월동 중 벌통 내부 온도 유지를 위한 전기 가온 장치를 사용하고 있지만 적정 온도와 습도 관리 방법이 정립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차상근 기자 skc8472@

韓·日, 농림수산 과학기술 협력관계 증진

농식품부, 농림수산기술협력위원회 개회 올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5년 만에 재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일~9일까지 부산에서 제52차 한·일 농림수산기술협력위원회를 개최, 스마트 농림수산업 확산, 기후변화 대응 등 농림수산 분야 양국 당면현안에 대한 과학 기술적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양국 농림수산기술협력위원회는 1968년 제2차 한·일 정각료회의에서 농림수산분야 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정기 협력 채널 마련에 합의한 후 매년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돼 왔으나, 2018년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51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교류가 중단된 상태였다.

그러다 올해 3월 한·일 정상회담에 따른 경제협력 후속조치로 중단된 지 5년 만에 재개됐다. 회의에서는 탄소 중립, 밀 자급률 향상, 동물질병 대응 등 농림수산분야 공동연구제안과제에 대한 양국 간 논의가 이뤄졌다.



제52차 한·일 농림수산기술협력위원회가 8일~9일까지 부산에서 열렸다.

/농식품부

또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데이터 수집·활용 사례, 기후변화 국제회의의 공동 대응, 농촌진흥청과 일본 국립농업식품연구기구(NARO) 간 업무협약 추진 등 상호 제시한 관심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정보교환도 진행됐다.

일본대표단은 지난 10일 경남 밀양에 위치한 지능형농장 혁신 단지(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방문해 빅데이터 센터, 청년창업 보육센터 운영 현황 등을

시찰하기도 했다.

한국 측 수석대표인 윤원승 농식품 혁신정책관은 “이번 회의는 지난 50여 년간 유지되어온 한·일 간 농림수산과 학기술분야 소통창구의 복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위원회를 통해 양국 간 당면 과제에 대한 공동연구 추진, 기술정보 교환 등을 강화해 한·일 간 농림수산분야 과학기술 협력관계를 증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고용부, 소기업 출산·육아휴직 활성화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확대

정부가 직원 50인 미만 등 소기업 근로자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활용은 증가하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서는 활용이 어렵고 남성보다는 여성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중소기업·남성의 모성보호

제도 사용 애로사항 완화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내년 ‘6+6 부모 육아휴직제’를 도입해 육아휴직급여를 확대한다.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번갈아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 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상향해 지원하는 제도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한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사용 가능 자녀 연령은 8세에서 12세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제주 해녀어업, 세계중요농어업유산 등재

국내 7번째 사례

‘제주 해녀어업’이 세계식량농업기구(FAO)에서 관리하는 세계중요농어업유산(GIAHS)으로 최근 등재됐다. 국내에선 7번째 사례가 됐다.

1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세계중요농어업유산이란 전통적 농어업시스템 보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한다. 세계적으로 중요한 농·어·임업유산시스템 및 관련 경관, 생물다양성 및 지식 시스템을 식별하고 보존과 지속가능한 관리를 추진한다.

제주 해녀어업 등재로 이달 기준 국내 세계중요농어업유산 수는 7개로 늘었다.

해수부는 “제주해녀어업이 세계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간 전통문화, 생물보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지난 2017년 5월부터 운영해 왔다”고 밝혔다.

올해 5월에는 세계식량농업기구 과학자문그룹 전문위원인 노부야키 야기 동경대 교수를 초대에 현장자문도 받



해녀의 물질작업.

/해수부

은 바 있다.

조순환 해수부 장관은 “올해 7월 등재된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에 이어 제주 해녀어업까지 연이어 세계중요농어업유산으로 등재됐다”며 “우리 어업이 세계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내 세계중요농어업유산으로는 청산도 구들장농업(2014년 등재·국내 1호)과 제주 밭담(2014년) 등이 있다. 또 하동 전통차농업(2017년), 금산 전통인삼농업(2019년), 담양 대나무밭(2020년), 하동·광양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2023년 7월)이 잇따라 등재됐다.

/세종=김연세 기자

소 럽피스킨 접종 완료에도 충청도·전북 추가 확산

농식품부, 한우농장 3곳서 감염 확인

소 럽피스킨 백신 접종이 완료됐지만, 충청도와 전북 축산농가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소가 추가 확인됐다. 정부는 백신 접종 이후 항체 형성까지 약 3주가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11월 말경 럽피스킨 추가 감염이 멈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바이러스 국내 유입과 전파 방식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변이바이러스 가능성도 있어 전염병이 더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날 충북 충주, 충남 예산, 전북 고창 한

우농장 3곳에서 소 럽피스킨이 추가 확인됐다. 이로써 이날 오후 2시 기준 럽피스킨 발병 사례는 8개 시도 29개 시·군 총 91건으로 집계됐다.

소에만 발병하는 바이러스성 감염병인 럽피스킨은 지난달 20일 충남 서산 한우농장에서 첫 확진된 이후 전국 8개 시도로 확산된 상황이다. 발생 농가와 동일 지역 축산농가에 대한 살처분과 백신 접종이 진행됐으나, 같은 지역에서 추가 발생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동일 지역 재감염 사례는 충남 서산을 비롯해 인천 강화, 전북 고창, 경기 포천, 충남 당진, 충남 아산, 경기 파주, 경기 김포 등 10여 곳으로 재감염

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날 추가 확진된 3곳 중 충남 예산의 경우 지난달 29일 젖소 농장에서 의심신고가 있었으나 음성 판정을 받았다가 11일 같은 지역 한우농장에서 신규 확진됐다.

충북 충주, 전북 고창은 재발생 지역이다. 충주는 지난 6일 한우농장에서 첫 발생한 이후 추가 발생했고, 고창은 지난달 30일 신규 확진된 이후 31일, 이달 9일에 이어 네번째 확진 소가 나왔다.

하지만, 일부 농가에서 백신 항원을 썬 희석액만 접종한 ‘물백신’이 확인됨에 따라 럽피스킨 발생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세종=한용수 기자